



젊어진 도의회 ‘청년 정책’ 관심 절실

제주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청년자율예산 제도·청년보장제 등 관심 촉구

20·30대 의원을 수혈 받으며 젊어진 제12대 도의회가 개원 후 처음으로 진행된 업무보고 자리에서 청년 정책을 강조하며 민선8기 제주도정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청년들이 청년참여 예산제도 등을 통해 제안한 정책이 당해연도 예산편성과정을 거쳐 그 다음해에 집행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청년원탁회의 등에 참여해 제안한 정책이 실제 실현되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즉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예산을 풀(Pool)성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청년자율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풀(Pool)성 예산은 개별 특정 목적을 정하지 않고 한 묶음으로 사업비를 편성해두는 예산으로, 청년들

이 제안한 정책사업들이 해당 예산과목을 통해 당해연도에 바로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스스로 실행해 낼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이중한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안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에 바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은 “오영호 도지사의 6대 핵심공약 중의 하나인 ‘제주형 청년보장제’에 대한 제주청년들의 관심이 매우 높지만, 아직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청년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조속한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제주형 청년보장제는 청년들이 도전을 멈추지 않도록 안전하게 실패하도록 보장하는 청년실패보장제가 돼야 한



(왼쪽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한동수 의원, 강경흠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중한 실장은 “창업과 관련한 해당 실국이 적극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의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과 관련한 청년 창업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같은 날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은 “해양수산분야는 최근 고령화, 인력난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는 청년사

업이 전혀 적혀 있지 않다”며 “현재 추진하는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에서 2022년 15개사 선정 중 청년대표가 4건으로 청년창업률이 26%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산산업 창업투자는 창업한지 3년이 지나면 기존에 지원받던 혜택이 사라진다고 “해양수산 분야 청년기업을 육성하고 성장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업교육, 홍보마케팅, 재무관리 등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문섬 연산호 군락 훼손 정밀조사를”

민주당 전용기 의원·녹색연합 국회 기자회견 열고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과의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연기념물 서귀포 문섬 연산호 군락 훼손 정밀조사 시행을 촉구했다.

전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광잠수함 운항으로 인해 제주 문섬의 암반과 산호군락이 훼손되고 있다”며 “잠수함 운항을 중단하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 점검 및 연산호 훼손에 대한 현장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 위치한 문섬은 2000년 천연기념물 제421호(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다양한 식생과 연산호 군락이 확인되고, 신종·미기록종 해양생물들이 다수 출현하는 생물다양성이 뛰어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유네스코에서 중복지정된 보호구역이다.

그런데 최근 관광잠수함 운항구역인 문섬 북쪽면(동서 150m, 수심 0~35m)의 암반과 산호 군락 훼손이 심각하고, 범섬보호종 산호 9종이 위협에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녹색연합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

다. 관광잠수함 업체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잠수함을 운항하고 있다.

전 의원과 녹색연합은 “지난 6월 문화재청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와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추가로 절대보존지역(F구간), 제2중간기착지 훼손지가 확인됐고, 제주도(서귀포시)는 문섬천연보호구역 내 잠수함 운항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정기 현장점검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화재청이 잠수함 업체의 부실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근거로 운항 허가 기간을 연장해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문섬은 생태적 보전 가치와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다는 판단 아래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제3조 ‘원형 유지’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문화재청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에 대한 점검과 연산호 훼손에 대한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연안항, 무역항처럼 보안체계 구축을”

도의회 농수축위 제1차 회의서 선박 화재 관련 지적
병렬접안 개선방안·화재 예방 시설 구축 등 한목소리

제주 성산항과 한림항에서 최근 잇따라 선박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 도내 연안항에서 선박 작업 시 무역항에 준하는 보안관리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제1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최근 성산항·한림항 어선화재로 막대한 재산·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한림항과 관련한 화재는 전기, 화기 등으로 발생한 화재로 추정

되는데, 선박 작업 시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냐”고 묻자 좌임철 도 해양수산국장은 “무역항에서는 선박 입항 관련 법률에 따라 위험 작업 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돼 있지만, 연안항은 제외된다”고 답했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은 “출어 준비를 하거나 선박에서 중요한 작업을 할 때에는 해양경찰이나 관리사무소로 신고해 어선을 분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매뉴얼이 없다”면서 “연안항에서도 선박수리 시 안전된 장소로 이동해 수리해야



12일 제주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1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된다. 무역항에 준하는 보안관리 시스템 매뉴얼을 구축하기 위해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좌임철 국장은 “동의하지만 권리제한 부분도 일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도내 항만 시설의 선석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

면·추자면)도 “한림항은 선석포화상태로 인해 연쇄적인 어선화재가 발생했다”며 “차량 차고지증명제처럼 한림지역 어선위주로 선석배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연호 위원장(국민의힘, 표선면)은 “행정에서는 충분한 피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태윤기자

제주도 지방어항 8개소 대상
안전 시설물 보수·보강사업

해녀 문화유산 6곳 정비
원형 보존 매뉴얼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지방어항 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4~5월 지방어항 19개소를 대상으로 어항시설 기능유지 및 안전성 여부, 어항 환경·파손상태·이용 상황, 어항구역 안 표지판 등을 일제 점검했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노후된 지방어항 8개소에 대해 보강 및 재정비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총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투입해 8월까지 월파 및 노후로 파손된 안전난간의 보수·보강과 함께 안전사다리, 방충제, 차막이, 안전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들의 삶이 담긴 불턱·해신당 등 해녀유산 6곳에 7000만원을 투입해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해안 일원에 산재된 불턱·해신당 중 형태가 상당부분 남아 있거나 기반부 및 석재로 등이 잔존한 기존 유산을 보수·정비하는 사업이다.

도는 양 행정시를 통해 보수·정비 대상지 7곳을 신청 받았으며, 과거 항구 자료 및 연구 보고서를 통해 위치 및 형태에 대한 현장 확인을 바탕으로 3곳을 선정했다. 또 태풍 등 자연재해로 훼손된 불턱 3곳은 직권으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원형 보수 매뉴얼을 구축하고 향토유산 지정을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제21회 제주4·3행방불명 희생자 진혼제 봉행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서는 행방불명된 영령님들의 고혼을 위로하고 해원을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제21회 제주4·3행방 불명희생자 진혼제를 봉행합니다.

다 음

- 일 시 : 2022년 7월 16일(토) 10:00
- 장 소 : 제주4·3평화공원내 행방불명희생자 표석 위령제단

(※우천 및 악천후시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주관 : 제주4·3희생자유족회/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

제1부 진혼제례 (08:40~)

제2부 영가를 위한 방광침 (09:00~)

※방광침 : 죽은 영혼들의 가슴에 맺힌 것을 풀어 위로함

제3부 제21회 제주4·3행방불명희생자 진혼제 (10:00~)

- 국민의례
- 헌화 및 분향
- 경과보고
- 주 제 사
- 진 혼 사
- 추 도 사
- 추모시 낭송
- 추모곡 합창

제 주 4 · 3 희 생 자 유 족 회 장 오임중
제주4·3희생자유족회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 양성홍

문의처 :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무국 724-4343

저녁반 국비지원 초보자 가능 컴퓨터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과정 초보자도 자격증 취득 가능

대 상 재직자, 구직자(취업목적), 영세사업자, 학생(휴학생)등 거의 대부분

과정명 문서작성 실무자 양성 (ITQ한글엑셀파워포인트 취득)과정

기 간 2022.07.20 ~ 10.12 (조기마감 가능)

일 정 월~목 (주4회)

시 간 저녁 7시 ~ 9시 50분

자 비 386,680 (근로장려금 수급자 212,680)

준 비 내일배움카드 및 일반인 (전체금액 납부)

내일 배움카드 발급기간이 오래 걸릴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바랍니다. (064-749-3434)

주식회사 제원직업전문학교
jejujewon.com (제주시 연동 283-26, 3층)
T. 064-749-3434

※ 본 과정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진행합니다.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누출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 정공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그랜드보청기

'청각 솔루션센터'

그랜드보청기 여름 무더위탈출 대 이벤트

※보청기와 관련된 궁금증 친절히 안내 드립니다.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충전형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Q&A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점구이 서광로 225 2층 제주시서대미마을